

새로 발견된 한글 음역 사경 「묘법년화경」의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Newly Found
"Myobup-Yunwhaa-Kyung" Trans-literated in Korean

현영아(Hyun, Young-Ah)*

◁ 목 차 ▷

- | | |
|---------------------|------------------|
| 1. 序言 | 5. 묘법년화경의 音譯의 特徵 |
| 2. 寫經의 傳來 | 6. 結言 |
| 3. 묘법년화경 寫成의 時代的 背景 | <참고문헌> |
| 4. 묘법년화경의 書誌的 特徵 | |

< 초 록 >

본 묘법년화경은 新羅 선덕왕때 원효대사가 한 동안 이곳에서 안거하면서 수도장으로 삼았다고 구전되어오는 曹溪宗의 한 寺刹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보관되어 오던 것이 발견된 것으로서 한글 사경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묘법년화경 즉 법화경은 그동안 많은 판이 있지만 대부분 목판본 내지 활자본으로 사경은 많지 않고 더군다나 한글 사경은 드문 점에서 본 사경이 주목되며 권수제에 묘법년화경으로 표기 되어있어 이후부터 권수제와 같이 묘법년화경으로 지칭 한다.

본 사경은 음역된 것으로 發願記에 仁祖 4년에 筆寫되었음의 기록이 있으며 白紙墨寫經의 2권 1책으로 내용은 묘법년화경홍전서, 묘법년화경요해서 및 권1의 서품 제1과 방변품 제2, 권2의 비유품 제3과 신해품 제4로 되어있다.

이 묘법년화경의 분석을 위하여 寫經의 유래와 본 사경이 寫成된 시대적 배경과 함께 書誌的 特徵 및 國語學的 特徵을 살폈다. 특히 寫經의 音譯 표기 내용을 본 사경이 사성된 시기 즉 17세기 초 전후의 다른 언해본들과도 비교하여 국어학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본 묘법년화경 사성기에 기록된대로 즉 17세기 초에 본 사경이 완성되었음을 밝혔다. 앞으로 한자에 쓰인 한글 표음법 연구 등 국문학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要語：法華經, 妙法蓮華經. 寫經.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ahyun@mju.ac.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Myobup-Yunwha-Kyong” is Korean Sakyong, which is a distinctive feature of it. The book had been kept in custody along with other relics before it was found in a Buddhist temple of the Chogye Order---it’s orally handed down that Saint Wonhyo led a peaceful life and practiced asceticism in the temple during the Sunduk era of Shilla.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versions of “Myobup-Yunwha-Kyong” or “the Sutra of the Lotus”, most of them are the ones printed from wood blocks and only a few of them are Sakyong. Moreover, Korean Sakyong versions are very few and far between. That’s why it has drawn a lot of attention.

It’s been recorded that this trans-literated “Myobup-Yunwha-Kyong” consisting of two volumes of a book “Baekji-Meuk-Sakyong” had been transcribed during the 4th year of Injo, Chosun Dynasty.

The origin, the bibliographical and Korean language features along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when it was transcribed were observed to analyze the book. Especially, by comparing the trans-literated contents of the Sakyong with other Korean annotations of Chinese classics around the early 17th century when the book was transcribed and by analyzing th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it was confirmed that the Sakyong had been finished in the early 17th century as recorded in the “Myobup-Yunhwa-Kyong” Sasung-ki. Thi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earch on the Korean language including the one on Hangul phonetic representation used in Chinese language.

Keywords : Myobup-Yunwha-Kyong, Bupwha-Kyong, Sakyong, Transliteration.

1. 序言

묘법년화경의 梵稱은 Saddharma-pundarika sutra이다. 삼(Sad)은 「妙」 또는 「正」이라고 번역되었고 다르마(dharma)는 「法」, 폰다리카 (pundarika)는 「蓮華」 또는 「華」라고 번역되었다. 수우트라는 「經」을 의미하는 말이다. 진리를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올바른 꽃 연꽃에 비유해서 이와 같이 부른 것이다.¹⁾

이 經은 우리나라 天台宗의 근본인 경전이며, 현재 한국 불교의 근본경전의 하나로서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특히 이 경은 모든 經典 중에 가장 수위이며 초기 大乘經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이다. 처음에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竺法護라는 사람에 의해서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경은 5세기 초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으로서 7권 28품이다.²⁾

본 한글 사경 “묘법년화경”은 신라 선덕왕 (632-649) 때 원효대사가 한동안 이 곳에서 안거하면서 수도장으로 심았다고 구전되어오는 曹溪宗의 경기도 소재의 원효사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보관되어 왔던 것이다. 이 한글 목사경은 송유배불책이 국시로 확고하게 굳혀진 17세기초의 조선 왕조, 그것도 유교적 규범이 엄격한 궁중의 상궁에 의해 사성된 공덕경인 점과 한글 음역본 사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경 사성의 시대적 배경과 기타 사경의 유래 및 사경의 서지적 제 특징을 연구하여 사경 연구 및 국문학 연구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2. 寫經의 傳來

1) 寫經의 연원

1) 李箕永, 「佛典解說」(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1), 575-616.

2) 李智冠, 「韓國佛敎所依經典研究」(서울: 寶蓮閣, 1973), 331.

한반도에서 사경은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부터 전교와 교화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그 연원은 매우 오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경들은 신라시대 紙本墨書經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현존 실물들이 고려 말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당시 불교의 포교 및 專法을 보면 사경은 일찍부터 한반도 내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4세기 후반에 불도들에 의해 사성되었을 것이다.³⁾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秦王 符堅이 사신과 함께 승려 順道를 보내 불상과 經文을 보냈다는 기록으로⁴⁾ 미루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반도내에 처음으로 불상과 경문이 전래된 기록이 되겠지만 이때 전달된 경문은 불교의 전래를 위해 바로 사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백제와 신라 역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차례로 경문의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서의 경전을 토대로 불교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다져졌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불교 문화가 꽃피는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신라사경

신라시대 사경 중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이 “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2軸이다. 이 사경은 우리나라 사경사에 그 유래가 없는 귀중한 사경으로 그 가치가 또한 막중하다.

이는 3분 화엄경 가운데 實叉難陀번역(695-699)의 80권 “新譯華嚴經”으로서 신라 고승인 緣起法師가 단독으로 발원하였고 필사는 지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문에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두가 많이 혼용되어 있으며⁵⁾ 卷第 50의 末尾에 붙인 寫記의 내용이 주목된다. 이 寫記에 의하면 신라의 황룡사 僧 緣起法師가 은혜를 베풀어주신 어머니를 위하고 一切衆生들의 성불을 위해 발원하여 景德王 13년(754) 8월 1일에 착수, 그 다음해인 14년 2

3) 黃壽永, “寫經의 歷史,” 『佛敎美術』 7(1983), 65.

4) 『三國史記』 卷18 小獸林王 2년 夏 6월條

5) 黃壽永(1983), 66.

월 14일에 완성시킨 경위를 밝히고⁶⁾ 수칙과 의식절차에서 우리나라의 사경은 신라 때부터 엄숙하고 장엄한 의식절차를 밟아 청정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정성껏 사성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 초기사경은 성암 고서박물관 소장의 白紙墨書의 金剛般若密經의 殘片 등이다. 이와 같은 신라승려의 발원경의 출현은 곧 국왕 또는 귀족들의 사성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寫經의 성행 및 대장경 사업의 바탕은 바로 고려의 대장경 간행을 완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은 물론 동시에 고려 국왕·귀족들의 金銀字大藏經으로까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⁷⁾

3)고려시대 사경

고려조는 신라 불교를 계승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고 그 진흥책에 힘썼기 때문에 사찰은 곳곳에 세워지며 백성들의 신앙도가 날로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왕실과 귀족들은 繁榮과 壽福·薦度を 기원하는 寫經功德으로 되면서 한층 호화롭고 장엄하게 꾸미는 전기가 되었다.⁸⁾

이와 같이 성장해온 고려사경은 護國心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기에 이르렀으며 寫經場은 초기에는 皇都의 주요 사찰이 되었고 12세기말기 이후에는 사경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4세기에는 개인들이 신분의 차별과 귀천 없이 故人の 薦도와 현세의 壽福 및 소원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寫經功德을 해왔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⁹⁾ 고려의 金銀泥寫經 중 오늘에 전래되어 있는 것들은 紺紙金泥大寶積經 卷第32, 大般若波羅密多經 卷第175¹⁰⁾, 紺紙銀泥不空羂索變眞言經 卷第 13, 紺紙銀泥文殊師利問菩提經 1軸, 紺紙銀泥佛說菩薩本行經, 紺紙銀泥菩薩戒經 卷第 8, 紺紙銀泥顯識論 등이다.

6) 李基白, “新羅 白紙墨字 大方廣佛華嚴經 寫經 卷第五十 寫經 跋文,” 『韓國上代古文書 資料集成』 (서울: 一志社, 1987), 28-30.

7) 黃壽永, “安城 淸源寺의 高麗寫經” 『東洋學』 5, 443-452.

8) 千惠鳳, 『國寶』 12, (서울: 藝耕産業社, 1985), 207.

9) 千惠鳳(1985), 207.

10) 權憲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274-289.

고려초기에는 왕실과 귀족들에 의해 주로 사찰에서 寫成되고 武人執權 이후에는 國王 發願에 의해 나라의 寫經院에서 사성되었다. 그 후 충렬왕 이후 고려말기까지의 1세기 동안은 개인들에 의하여 고인의 천도와 현세의 공덕·勸善을 위해 다양하게 사성·보편화 되었다.

4) 조선시대의 사경

조선왕조는 건국하자 송유척불책을 국시로 삼고 민심의 一變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걸쳐 뿌리깊게 박힌 전통과 신앙은 쉽게 바뀌어질 수 없었다.

국초의 왕실에서는 太祖·太宗朝에 大字楞嚴經을 淨書케 한다던가, 太宗 8년(1408) 妙法蓮華經 一部를 金泥 寫成케 하였다. 그해 11월에는 定宗이 명하여 妙法蓮華經·父母恩重經·長壽滅罪經을 각각 1部씩 金泥 寫成케 하였다. 이러한 寫成佛事가 있게 되자 그 뒤 國王과 王室은 물론 儒臣들 가운데도 불교에 귀의하여 刊經과 寫經을 寫成하는 例가 한동안 속출하였다.

예를 들면, 太祖의 三男인 益安大君 芳毅도 太宗朝 初에 法華經을 사성하여 王의 수복을 빌었고, 세종 32년(1450)에 「椽紙金泥金剛般若波羅密經」, 세조 3년(1457) 王世子の 亡哀薦靈을 위해 法華經·世藏經·起信論·梵網經·行願品 각 1件을 사성 安平大君 瑑의 사성으로 전해지는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第3 斷簡 1帖 등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선비나 민간에서도 寫經功德의 불사가 이루어져 太宗 5년(1405)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성한 「白紙墨書妙法蓮華經」 卷第7 零帖과 太宗 13년(1415) 남편 柳謹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성한 「白紙墨書妙法蓮華經」 8卷 7帖 完帙本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후 조선조 말기까지 간간이 白紙墨書 또는 紺紙金·銀泥의 사경이나왔지만 글씨체는 사경체가 아닌 당시 유행한 字體로 바뀌었고, 사경의 질은 더욱 떨어졌다. 다만 白紙의 宮體 한글로 墨書한 사경들이 간간이 나타날 뿐이었다.¹¹⁾

3. 「묘법년화경」사상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본 사경이 완성된 天啓 元年(1626) 3월이던 西人 일파가 광해군을 폐위하고 仁祖를 새왕으로 추대하여 정세는 몹시 불안정했으며 이는 특히 새로운 집권층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仁祖 2년(1624)에 일어난 李适의 반란은 이러한 불안한 정치 정세의 단적인 표현이었다. 또한 당시 집권층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국방대책도 없이 明에 대한 의리만을 강조하던 시대로 결국 1627년에는 後金の 침략을 당하게 되던 시기로 사회적으로 민심이 한층 불안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2) 불교의 중흥

한편 고려 말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한 배불의 기세는 왕조가 바뀐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문정왕후 윤씨는 중종의 혹독한 배불 정책에도 불교를 독실하게 신봉하였으며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려 노력하였다.

1545년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 하자 대비로 섭정하게 되면서 평소에 품었던 불교 중흥의 뜻을 펴고자 하였다. 대비는 1550년 12월에 禪敎兩宗을 부활시키고, 그 이듬해에 普에게 교단 중흥의 중책을 맡겼다. 이에 普雨는 문정대비를 도와 봉은사를 禪宗 본사로, 봉선사를 敎宗 본사로 삼고, 度僧法과 승과를 다시 시행하는 등 교단 중흥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552년에는 본고사 僧選을 실시하는 등 교단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지만 당시 관료과 유생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중흥의 기세는 1568년 4월 문정대비의 승하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普雨는 제주도로 귀양가 죽음을 당하였다. 이로부터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다시 떨어지고, 普雨와 문정대비에 의한 15년 동안의 불교부흥 운동은 비록 중도에서 꺾이고 말았으나 궁중에 불법승

11) 千惠鳳(1985), 207.

상의 기풍을 깊게하고 불교계에 유능한 인물을 배출시켜 교단의 명맥이 유지되게 되었으며, 후일에는 국난을 구하는데 승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와 같이 普雨와 문정대비에 의해 부흥의 빛을 보았던 불교계의 고승들은 유생들의 탄압에 의해 산중으로 쫓겨 갔으나 임진왜란의 외적침입으로 국가가 위태로워지자 義僧으로 활약하는 등 이들의 수는 5000여명에 이르렀다.

사명대사 惟政을 필두로 임진왜란의 국가적위기를 이겨내는데 크게 공헌한 승군들의 힘은 이제까지 저급한 사회 신분으로 처우되던 승려들의 지위를 일약 국가로부터 공직의 승인을 받은 당당한 지위로 격상시켰다. 이를 위한 불교 시책은 관료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승군들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宣祖26(1593) 3월 惟政을 비롯하여 전공을 세운 승려들에게 승과를 수여하도록 명시하였고,¹²⁾ 8월에는 팔도 각처에 摠攝을 2인씩 두고 총 지휘자로 都摠攝을 두도록 정착되었다.¹³⁾

그 후 仁祖 2년 (1624)부터 3년 간에 걸쳐 남한산성을 수축하는데 碧巖覺性이 都摠攝이 되어 승도를 이끌고 사업을 완수함이 후에는 開元寺, 漢興, 長慶寺 등 9개 사찰에 350명의 의승군이 주둔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의승군들은 승려 본분의 간경과 의승군의로서의 임무를 겸행하면서 왕성수호를 담당하게까지 되었다.

3) 국학의 발달

조선 중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실학사상은 朝鮮學 즉 국학을 발달 시켰다.

원래 조선학이란 조선 고전에 관한 학문으로써, 근세 조선에 나타난 실학파에 의해 문헌적 실증을 중요한 방법으로 삼아 이루어진 조선의 연구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사상 체계 위에서 성립된 학문이었다.¹⁴⁾ 이러한 기운이 조선조 중기 이후 더욱 고조되었다. 이는 곧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

12) 「宣祖實錄」卷36, 宣祖 26년 3월 壬午.

13)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 (서울: 新文館, 1968), 832-833.

14) 金敏洙, 「全訂重版 新國語學史」(서울: 一潮閣, 1990), 157-159.

로 도출되었다.

16세기 말 이후 임진왜란을 겪는 등 사회 변동이 더욱 격화되고 기존 여러 제도와 문물의 변화 및 모순이 보다 심화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여러 문물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역대의 제도와 문물의 연혁에 대한 관심이 보다 고조되어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은 개혁사상적 백과전서학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 개혁사상적 백과전서의 효시를 이루는 李睟光의 「지봉유설」이 1614년에 편찬되었다. 이것은 당시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와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조선의 변화에 관심을 갖은 실 예가 되겠다.

4) 국문소설

국문소설의 등장은 오랜 전부터 있어온 한문소설 창작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중국 演義소설류의 전래 및 번역과 변안 작업을 통한 문학적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임진왜란 이후 초래된 사회현실과 그에 상응하는 내외적인 경험과 충격을 통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한 수준의 국문소설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창작국문소설의 선두로 「홍길동전」을 비롯하여 「劉忠列傳」·「蘇大成傳」·「趙雄傳」·「張風雲傳」·「玄壽文傳」 등이 있다.¹⁵⁾ 이들은 모두 민중의 상상력을 재구성한 새로운 역사군담소설로서 한글 소설이 대다수 읽혀졌다. 이와 같은 국문소설의 등장은 한글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仁祖反正과 李适의 亂으로 전국이 불안정한 시대에 궁중의 상공에 의한 한글 사경의 사성은 유교국을 표방했던 궁중생활의 풍습을 볼 수 있다고 보겠다. 또한 당시 궁중에서 사경을 한글로 쓰게 되었다는 것은 홍길동전과 같은 국문소설이 널리 읽혀졌다는 점과 당시 사회의 국학에 쏟았던 관심과도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5)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서울: 知識産業社, 1971), 442-443.

4. 「묘법년화경」의 書誌的 特徵

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성된 본 사경은 조선 인조 4년 (1626) 사성된 白紙墨寫經의 線裝으로 2권 1책 (72장)이다. 형태적인 특징으로 광곽은 상하쌍변 좌우단변이며, 반엽의 크기가 28×21.4cm로서 무사란의 향자수가 10향 18자이며, 현토는 단·쌍향으로 되어있다. 판심상에는 無板心題로 장차 표시만 있다. 卷 末尾에 發願文이 있으며 내용은 묘법년화경홍전서, 묘법년화경요해서와 권1의 서품 제1과 방변품 제2, 권2의 비유품 제3과 신해품 제4이다.

시 대 : 조선 인조 4년 (1626) 筆寫
종 별 : 白紙墨寫經
장 정 : 線裝
수 량 : 2권 1책 (72 장)
재 료 : 楮紙
크 기 : 36×25.7cm

형 식 : 상하쌍변 좌우단변, 반엽면 크기 28×21.4cm, 무사란,
반엽 향자수 10향 18자 현토 단·쌍향,
판심상 : 무판심제(無板心題), 장차의 숫자 표시

발원문 : 尙宮崔氏 慧遠
願我此身 以此功德 於當來世
變爲男子 入佛道場 參禮慈尊
聞所未聞 見所未見 求脫塵根
終成佛果
天啓六年 (인조 4, 1626) 三月日寫

묘법년화경은 부처님의 久遠成道와 諸法實相의 진리에 대해 聲聞·緣覺·菩薩의 三乘에서 각기 다르게 깨달은 바를 一乘으로 歸一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大乘經典으로 흔히 줄여서 “법화경”이라 일컫고 있다. 이 법화경은 요진(姚秦)시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당나라의 종남산(終南山) 석 도선(釋道宣, 596-667)이 홍전서(弘傳序)를 짓고, 전주북주 상생선원(前住福州 上生禪院)의 조사사문 급남(及南)이 서(序)를 붙였으며, 송나

라의 온릉 개원련사(溫陵 開元蓮寺) 비규 계환(戒環)이 要解하여 7권 28품으로 엮은 것이다.

이 전래의 목사경은 권 1의 개석과(開釋科)5 서품(序品)제1·방편(方便) 제2와, 권2의 비유품(臂喩品)제3·신해품(信解品) 제4를 한글로 음역하여 필서한 목사경 1책이다. 여기에 담겨진 내용으로 제1서품은 부처님이 왕사성(王舍城)의 기사굴산(耆闍崛山)에서 1만 2천명의 비구들이 모인 가운데 무량의처(無量義處) 삼매(三昧)에 들어 이제 곧 일대사(一大事) 범문을 설하려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제2 방편품은 법화경의 핵심인 會三歸一을 다룬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문·연각·보살의 삼승에서 방편상 각기 다르게 깨닫게 하지만, 결국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의 목표인 일승(一乘)으로 귀일시키고자 함을 밝힌 것이다. 제3 비유품은 양차(羊車)·녹차(鹿車)·우차(牛車)등 세가지 차의 비유를 들어 성문승·연각승·보살승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불난집의 비유는 3계의 중생을 구출하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이며, 여기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일불승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4 신해품은 수보리(須菩提)·마하가전연(摩訶迦旃延)·마하가섭(摩訶迦葉)·마하목건련(摩訶目健連) 등의 사대성문(四大聲聞)이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각기 확신하며 해명한 것이다.

이 목사경에는 권말에 상궁 최씨(尙宮 崔氏) 혜원(慧遠)의 사성 발원기(寫成 發願記)가 다음과 같이 정서되어 있다.

“원하옵건대, 내 이몸이 사경 공덕으로 내세에 남자로 태어나서 부처도량에 들어 석가세존에 참례하며 듣지못한 범문을 듣고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달아 번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저승에서 부처님의 지위에 이루게 되길” 간절히 염원하였다. 이 사경을 목서하여 사성한 시기는 인조 4년(1626) 3월이다.

이 필사의 사경은 위 아래에 쌍변(雙邊)을 긋고 좌우에 단변(單邊)을 그은 무사란(無絲欄)의 반엽(半葉)에 본문을 10행 18자로 썼는데 그 중 계언(偈言)에 한하여 4언(言)은 10행 12자, 5언(言)은 10행 15자로 각각 다르게 써서 경

문 독송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일반적 간인불경(刊印佛經)에 비해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홍진서·요해서·개석과에서는 한글 현토(懸吐)를 단행(單行) 또는 쌍행(雙行)으로 달았으나, 본문에서는 한글 현토를 달지 않고 표점(標點)으로 대신 하였다.

각 책장을 조사하여 보면 音譯을 잘못 쓴 것을 도려내고 고쳐 쓴 것을 붙이다 빠뜨린 것이 가끔 나타난다. 이러한 점이 다소 아쉽게 여겨지지만, 필사만은 정성들여 굵은 필획으로 넓적하게 또박또박 정서하고 있어 매우 해정하고 깨끗하다. 달필의 남자 사자생에게 청탁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앞뒤 표지는 구름 무늬와 자질구레한 七寶로 여겨지는 무늬가 복합된 수박색 비단으로 덧씌웠으며 紅絲複線으로 五針綴한 線裝으로 裝冊의 품격이 일반 책보다 돋보인다.

佛腹에 간직해 온 것이 나타난 것인 듯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冊紙도 상품의 닥으로 잘 떠서 매우 정교하다. 다만 불상에 스며든 누습으로 冊紙의 위 아래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었다.

이 목사경은 승유배불책이 국시로 확고하게 굳혀진 17세기 초의 조선조 그것도 유교적 규범이 엄격한 궁중생활을 하고 있는 상궁이 이렇듯 성불을 간절히 발원하며 사성한 공덕경인 점에서 주목된다.

5. 「묘법연화경」 音譯의 特徵

1) 국어사적 배경

본 묘법연화경이 음역 사성되었던 1626년은 앞서 언급했듯이 壬辰倭亂과 같은 큰 전란을 겪은 후로서 이 시기의 정신적 사회적 충격은 일반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朝鮮朝는 儒教를 國是로 삼고 兩班 特權階級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양반들은 三綱五倫을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삼았고 예의와 절

도를 존중했다. 이렇듯 보수적 봉건사회도 壬辰亂을 지내고 나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¹⁶⁾ 특히 壬辰亂이 오래 끌면서 물질적인 파괴 및 재건과 더불어 사회의 여러 제도 개혁과 정신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¹⁷⁾ 물론 전쟁이 언어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언어 급변의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본다.¹⁸⁾

즉 임진난은 양반들의 힘만으로 막아낸 것이 아니라, 천시 당하던 상민과 승려들의 도움이 컸다. 여기서 양반들이 가졌던 허식과 위엄의 무가치함과 또 인간의 同等性を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듯 평민들의 인간성의 자각과 동시에 커다란 戰亂을 겪고 난 사회는 생존 경쟁이 심해갈 수밖에 없었다.¹⁹⁾

이것이 임란 이후 우리 사회의 변해가는 양상이었다. 전쟁을 통해 양반계급의 무능이 노출되고 서민의 힘이 실증되면서, 과거의 보수적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의 경제적 본능에 따라 실리적 생존경쟁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주어 언어의 간소화와 실용성이 중시되고, 서민의 언어가 부상하여 점진적으로 근대 국어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²⁰⁾

이 시기의 문자 체계상에서 보면 임진란 이전의 문헌과 이후의 문헌들 사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어의 정서법이 가장 정제되었던 것은 15세기에 있어서고, 16세기에 오면 차츰 깨어져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壬辰亂 이후 15세기 중엽 이래의 정서법의 전통은 큰 혼란을 맞게 되었다. 이에 그 전통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언어가 크게 변화되었고, 또 임진란이란 대전란이 그러한 전통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제되고 통일된 새로운 정서법이 다시 마련되지는 않았고 따라서 그 혼란 상태가 17세기를 거쳐 18, 19세기까지 계속 심해졌다.²¹⁾

16) 金亨奎, 「國語史概要」(서울: 一朝閣, 1982), 146.

17) 姜吉云, 「國語史精說」(서울: 螢雪出版社, 1993), 224.

18) 姜吉云(1993), 399.

19) 金亨奎(1982), 146.

20) 姜吉云(1993), 399.

임진란 이전과 이후의 문헌 사이에 한글표기의 중요한 차이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傍點이 완전히 사라졌다. 16세기 후반의 일부 문헌이 이에 방점을 찍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17세기 초엽부터는 이것이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ㅇ’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16세기에 ‘ㅇ’자는 중성에만 국한되었고 ‘ㅇ’와 혼동되었던 것인데 壬辰亂 뒤부터는, 17세기 문헌에 간혹 ‘ㅇ’의 용례가 보인다고는 하나, 완전히 ‘ㅇ’자에 합류되었다고 할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ㅇ’자가 위치에 따라 상이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 ‘ㄷ’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적어도 표기상으로는 ‘ㄷ’자가 16세기 말까지 근근이 유지되었던 것인데 17세기에 들어서는 아주 폐용되었던 것이다. 17세기에 ‘ㄷ’이 간혹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이들은 대개 중세 국어 문헌의 영향을 받은 책들에 한정되어 있다.

넷째, 어두의 초성합용병서의 혼란을 들 수 있다. ‘ㅁ, ㅂ’은 인식이 바뀌어 먼저 17세기에 소실되었고, ‘ㅁ’의 異體로서 ‘ㅂ’이 17세기 초에 경음으로 인식되어 쓰이었다.

다섯째, 중성의 ‘ㅅ’과 ‘ㄴ’의 혼란을 볼 수 있다. 15세기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약 1세기 동안은 이 두 받침이 엄격히 구별되었으나 16세기 후반에 이 구별이 일대 혼란을 빚었고 17세기에 들어서는 받침의 ‘ㅅ’과 ‘ㄴ’은 자의적인 선택에 맡겨졌다.²²⁾

이와 같은 사회의 변동으로 인한 언어 생활의 영향은 한글 표기상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2) 표법연화경 음역의 특징

위와 같은 국어사적 배경 가운데 앞서 본 표법연화경의 서지적 특징을 살폈으나, 내용상에 있어서 음역의 한글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李基文, 「國語史概要」, 202.

22) 李基文(2004), 203.

본 묘법년화경의 한글 표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傍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은 17세기 들어서 아주 폐용되었다는 說을 그대로 뒷받침 해 주고 있다.²³⁾

셋째, ‘o’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壬亂 뒤부터 완전히 ‘o’자에 합류되었다.²⁴⁾

넷째, j(반모음 ㅣ)탈락 즉 활음탈락 현상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ㅅ, ㅆㅅ, ㅆㅆ, ㅆㅆ뒤에 오는 모음 ㅏ, ㅑ, ㅓ, ㅕ 가 뒤에 오는 모음 ㅏ, ㅑ, ㅓ, ㅕ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음운사적으로 18세기 초기 내지 중기어나 바뀌는데 아직 본 책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²⁵⁾

즉 者;자, 衆;중, 相;상, 析;석, 燭;축, 藏;장, 處;처, 世;세, 出;출 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다섯째, 비구개음이 구개음인 ㅈ, ㅉ,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ㄷ, ㅌ, ㅍ’이 ‘ㅣ, ㅑ’ 앞에서 ‘ㅈ, ㅉ, ㅊ’로 바뀌는 현상이다.

黠; ㄷ, 擗; ㅌ, 軸; ㅍ, 獨; ㅍ, 輒; ㅍ과 같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구개음화라면 i, y 앞에서 ‘ㄷ ㅌ ㅍ’ 이나 ‘ㄱ ㅋ ㆁ’이 ‘ㅈ ㅉ ㅊ’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변화는 서울말에서는 ‘ㄷ ㅌ ㅍ’의 구개음화만이 일어 났는데 그것도 매우 늦게 일어났다.²⁶⁾

여섯째, 원순모음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17세기 후기에 일어났던 변화로 순음(ㅁ, ㅂ, ㅍ, ㅃ) 아래서 ‘ㄱ’이 ‘ㄲ’로 변하는 즉 비원순성모음이 원순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모음 발음 시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변화되는 것인데, 국어에서는 ‘ㄱ’이 ‘ㄲ’로 변화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서는 (不 ; ㅂ)로 아직 기록되고 있음을 볼 때 17세기 초의 현상을 보여

23) 姜吉云(1993), 399.
24) 李基文, 「國語史概要」p.203
25) 李基文, 위의 책, 208.
26) 李基文, 위의 책, 207.

준다고 할 수 있다.²⁷⁾

일곱째, 단모음화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ㅣ’의 경우 ‘ㆍ(아래 아)’의 음가 소실 이후, 이중모음 (H/ai/로 단모음 ‘H/’로 변화하는 단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²⁸⁾

宅→(택), 白→(백), 開→(기), 在→(지), 解→(히), 內→(니), 生→(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덟째, ㄴ 탈락’은 ‘ㅣ’모음이나 ‘j(반모음 ㅣ)’ 앞에서 /ㄴ/이 탈락하여 없애지는 것을 말하는데 /ㄴ/탈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표기가 되었다. ²⁹⁾

아홉째, ‘ㅣ’→‘ㅣ’로도 아직 변하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1세기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³⁰⁾

이상으로 표법연화경의 한글 음역 표기의 특징을 살펴본 바 음운 내지 표기상으로 16세기는 지나고 17세기 초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표법연화경이 펴나된 시기(1626년) 전후시대에 편찬된 타 한글본도 조사하여 그에 나타나는 한글 표기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17세기 초 전후로 편찬된 언해본으로서는 15세기 『두시언해』(1481)를 비롯하여, 『훈몽자회』, 『소학언해』, 『번역소학』, 『석봉 千字文』, 『東醫寶鑑』,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언해구급경』, 『가례언해』, 『두시언해중간본』,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가례언해』, 『권념요략』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표기법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시대적 근사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문헌들의 국어학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杜詩諺解

27) 姜吉云(1993), 406-407.

28) 姜吉云(1993), 404.

29) 姜吉云(1993), 409.

30) 李基文(2004), 209.

「杜詩諺解」는 중국 당(唐)나라 시인 杜甫의 詩를 한글로 번역한 책으로서 세종 25년(1443)에 엮어진 「纂註分類杜詩」를 바탕으로 하여 諺解한 것이다. 원명은 「分類杜工部詩」[諺解] 이고 속칭은 「杜詩諺解」이다.

국문학 사상 최초의 번역시집인 初刊 杜詩諺解는 漢詩 및 漢文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仁祖 10년(1632)의 重刊本과의 연대 차이가 150년으로 그동안 우리말의 음운 변천을 연구하는데 어학적으로도 귀중한 문헌이다.

「初刊杜詩諺解」는 杜甫의 詩를 세종 때의 학자 柳允謙 등이 王命을 받들어 註解하고, 成宗 때 曹偉, 의침등이 諺解하여 成宗 12년(1481)에 전 25권 17책으로 간행한 활자본이다. 이 중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권1, 2, 12를 제외한 倭帙이 전하고 있다.

「초간 두시언해」의 표기상 특징은 방점(傍點)이 찍혀 있고 철자법(綴字法)은 연철(連綴)로 되어 있다. 音韻上의 특징으로는 ‘△’과 ‘ㅇ’자가 사용되었고,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母音調和 현상은 약화된 말이 간혹 나타나며, 子音同化 된 대로 기록한 말이 비교적 적는데 비해 插入母音의 사용은 대체로 규칙적으로 쓰였다.³¹⁾

② 小學諺解

「小學諺解」는 원본(原本) 「小學」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서 漢文으로 된 原本 「小學」은 중국 南宋때 光宗 14년(1187)에 劉子澄이 그의 스승이며 당시 巨儒 주희의 지시에 의하여 아동들에게 수신예절(修身禮節)과 효(孝), 충(忠), 신자(信者)의 사적(事蹟)을 가르치기 위하여 立教 明倫, 敬身, 解古, 嘉言, 善行의 6권으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들어와서 士大夫 子弟들은 8세가 되면 儒學의 초보로 이것을 배웠다. 이 小學諺解는 선조 20년(1587) 나라에서 校正廳을 설치하고 활발히 추진하던 經書諺解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中宗때의 「翻譯小學」이 너무 意譯에 흘렀다 하여 선조의 명으로 새로이 번역되었다. 이 책은 6卷4冊의 庚辰字로 된 活字

31) 한국어학연구회, 「국어사 자료선집」(서울: 박이정출판사, 1995), 273.

本 이다. 이는 安東 도산서원에 전질이 간수되어 있었던 것은 국학연구원에 이관하여 소장중이다.

「小學諺解」의 표기상 특징은 방점이 漢字나 우리말에 충실히 찍혀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에 실제 발음이 上聲과 去聲이 같기 때문에 戊寅年의 책인 『翻譯小學』에 따라 上聲과 去聲을 같이 두 점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ㅇ’과 ‘ㅇ’의 두 글자는 여전히 구별되어 쓰였으나 앞 음절의 중성이 ‘ㅇ’이 아닌 자리에 ‘ㅇ’을 초성으로 적지는 않아 두 글자가 하나로 통일되려는 싹이 보인다. ‘ㄷ’은 간혹 나타나기도 하나 대부분 ‘ㅇ’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ㄱ’아래서 ‘ㄱ’의 약화 형태인 /ㅇ/의 표기는 예외가 많아 ‘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성에 ‘ㅅ’으로 쓰이던 곳에 ‘ㄴ’으로 쓰인 것이 많은 것이 특이하다.

이는 분명히 본 표범연화경보다 먼저 편찬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즉, ㅅ이 아직 쓰였고, ㅇ도 아직 쓰인 점과 중성 ‘ㅅ’이 ‘ㄴ’으로 중성에서 쓰인 점 등으로 바뀌는 점이 많은 것으로 보면 표범연화경보다 먼저 편찬된 한글 언해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32)

③ 石峰 千字文

宣祖 16年(1583) 石峰 韓濩가 왕명을 받들어 「千字文」을 쓰고 한글로 訓과 音을 달아 놓은 한자 학습의 입문서이다.

「千字文」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문 初讀書로서 사용되어 온 책이다. 모두 四言古詩 250句의 1천자로 우주 삼라만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서술한 내용인데 전체를 통하여 한 자의 중복도 없다. 원래는 魏 武帝 때의 大夫 鍾繇가 처음 이것을 지었는데, 宋 文帝 때 그 차례가 혼란되어 梁나라 武帝 때 周興嗣로 하여금 韻의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次韻시킨 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千字文」이라는 설도 있으나 근거는 모호하다. 「千字文」에는 이밖에 明나라 周履靖 의 「廣千字文」 및 「易千字文」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周興嗣의 것이 전래되어 古來로 한문 학습의 入門書로 썼으며 百濟의 王

32) 한국어학연구회(1995), 313.

仁은 이를 일본에 전하였다는 설도 있다. 특히 조선 宣祖때 간행된 『石峰千字文』은 글씨나 註釋이 국어학 연구에 가장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수없이 많은 刊本이 있으나 이의 初刊本으로 추정되는 일본 동경국립공문서관 소장본의 木版本의 表記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³⁾

첫째, 방점(傍點)이 없다. 이 점은 『光州千字文』이나, 『新增類合』과도 일치한다.

둘째, ‘△’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책들은 ‘△’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데 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셋째, 16세기 前半으로부터 終聲의 ‘ㅎ’과 혼동되었는데, 여기에서는 終聲 ‘ㅎ’에 꼭지가 분명하다.

본 묘법년화경 한글본과 일치하는 점은 방점이 전혀 없다는 것과 ‘△’도 나타나지 않은점이며 ‘ㅎ’의 혼동은 묘법년화경보다 시대가 앞서기 때문으로 본다.

④ 諺解痘瘡集要

이 책은 御醫 許浚이 宣祖의 명에 의하여 1601년(宣祖 34年)에 편찬하여 1608年(宣祖 41年)에 內醫院에서 上下 2권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의서이다. 1601년에 許浚이 쓴 跋文과 그 끝에 萬曆三十六年 正月 日 內醫院開刊이란 刊記와 許浚의 跋文에 의하면 먼저 『胎産集』, 『瘡疹集』, 『救急方』이 전해 왔지만 壬辰倭亂 이후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宣祖는 許浚에게 이 三書を 편찬할 것을 명하고 內藏古今의 醫書を 내어 이를 검토하고 纂集 할 자료로 삼게 하였다. 許浚은 이에 이 三書を 편찬하여 올렸지만, 왕은 다시 근래 痘疫이 그치지 않으니 『痘瘡集要』가 가장 급하다고 하여 『痘瘡集要』를 찬집할 것을 명하여 이를 편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보급하였다.

국어 표기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33) 한국어학연구회(1995), 353.

34) 홍윤표,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서울: 태학사, 1993), 255-269.

첫째, 어두 된소리 표기에 ㅂ, ㅅ 계 뿐만 아니라 3자 합용병서도 나타난다.
 둘째, 어두음절에서도 ‘·’의 동요가 보인다.
 셋째, 어말자음 ‘ㅅ’과 ‘ㄷ’이 혼기되고 있다.
 넷째, 어말자음을 가진 체언은 거의 분철되고 용언 어간은 분철되지 않았다.
 다섯째, 자음동화현상이 표기에 반영 되어 있다. 여섯째, 공격조사는 거의 ‘-과’로 통일되는 근대 국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⑤ 「東醫寶鑑」

「동의보감」은 許浚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1610년에 편찬하여 광해군 5년(1613)에 내의원에서 改鑄甲寅字로 간행된 25권 25책의 방대한 한의서이다. 특히 이 책에서 탕액편 3권 3책은 약물명을 한글로 기록해 놓아 국어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동의보감」 초간본 탕액편에 나타나는 국어학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첫째, 1613년 刊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두 된소리의 표기인 ㅃ이 실현되고 있다.

둘째, 語末子音 중 ㅅ과 ㄷ은 구별되어 표기하나 混記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重綴表記가 보이거나 이것은 語末子音이 ㅅ인 체언에 한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후에 어말자음의 ㅅ과 ㄷ이 ㅅ으로 통일되어 표기되어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17세기 초에는 어말자음의 ㅅ과 ㄷ이 혼기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원순모음화 현상이 보인다.

다섯째, ㄷ구개음화도 보인다.

여섯째, 屬格조사 ‘-의’ 處格조사 ‘-에’가 統辭論的 중화를 일으키는 예가 보인다. 이는 ‘-에’가 /aj/가 아닌 /e/로 단음화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35) 윤병태, “東醫寶鑑 解題,” 『도서관』 106.

일곱째, ‘에’가 /e/로 단모음화 되었을 것이 라는 가능성은 ‘에’가 ‘이’와 혼기된 것에서 볼 수 있다.

⑥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5-1617)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발행한 효자, 충신, 열매 등의 행적을 채집하여 널리 퍼36), 난리를 겪으며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획되었다. 이 책은 15세기와 16세기에 간행되었던 「三綱行實圖」와 「續三綱行實圖」의 속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당초의 계획은 크게 확대되어 孝子圖 8권8책, 忠臣圖 1권1책, 烈女圖 8권9책, 모두 17권17책으로 광해군 7년 (1617) 그 편찬이 완성되었으나, 간행 경비가 막대하여 본서 편찬을 위해 별도 설치되었던 찬집청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지방 5도에 분배 간행케 되었다. 그리하여 광해군 9년 (1617)에 속부 편을 포함하여 도합 18권 18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이 각 지방에서 간행된 것이지만 지방에서는 간행만 수행했을 뿐 자료는 모두 찬집청에서 준비한 것이기에 간행지의 방언이 문헌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각 지방에서 뽑아 올린 자료들은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찬집청에서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이전에 간행된 「三綱行實圖」와 「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된 인물 중 우리나라 사람의 것만 뽑아서 취사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들이 시대에 따라 다른 표기법의 차이를 보여 주어 국어사적 해석에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워낙 巨帙인 까닭에 초판을 간행한 것 외에는 重刊이 없었던 듯 하며 한 질이 규장각에 전해온다. 이 문헌은 당시의 풍속, 사상, 습관 등을 엿보는 데 있어서 다시없이 귀중한 뿐 아니라, 문헌에 나타나는 다양한 국어의 모습으로 국어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표기법 특징으로는³⁷⁾

36) 광해군 4년 5월21일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聽儀軌」

- 첫째. ㅅ계와 ㅈ계 합용병서 사용.
- 둘째. △의 출현을 볼 수 있다.
- 셋째. 각자병서 ‘ㅁ’과 ‘ㅆ’의 출현.
- 넷째. 어두음절에서 아래 ‘·’동요.
- 다섯째. 대격조사 ‘-를’, ‘-를’의 교체
- 여섯째. 구개음화 현상을 들 수 있다.

⑥ 重刊杜詩諺解.

이는 成宗 12년(1481)에 간행된 바 있는 초간본을 기본으로 1632년에改刻된 책으로서, 초간본과 중간본의 시대적 차이로 국어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重刊杜詩諺解는 木版本으로 전 25권의 全帙이 전하고 있다. 이는 초간본과 書誌의 차이뿐 아니라 音韻체제나 表記法 상의 차이도 갖고 있다.

우선 音韻의 차이로 初刊本에 나타나던 방점이 重刊本에는 없고, ‘△’과 ‘ㅇ’이 초간본에서는 보이나 重刊本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음동화도 초간본에는 현저하지 않으나 중간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른바 삽입모음의 사용이 초간본에서는 규칙적이거나 중간본에서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개음화(口蓋音化) 현상이 初刊本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중간본에서는 간혹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음조화(母音調和) 현상이 초간본에는 비교적 뚜렷하나 重刊本에서는 혼란되고 있다.

表記法上的 차이를 보면 먼저 초간본에서는 連續하였으나, 重刊本에서는 체언과 조사, 用言(용언)의 語幹과 語尾를 간혹 分綴하였다. 子音同化的 경우 重刊本에서는 子音이 同化 되는대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또한 重刊本에서는 ㅇ은 쓰지 않은 점이 다르다.³⁷⁾

이 중간본이 본 묘법년화경의 필사시기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37) 한국어학연구회(1995), 377-393.

38) 한국어학연구회(1995), 287-304.

‘△’과 ‘ㅇ’ 및 방점이 쓰이지 않은 점등이 본 묘법년화경과 유사점이라 볼 수 있다.

⑧ 家禮諺解

朱子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모아 엮은 「家禮」를 申滉이 언해한 책으로서 인조10년(1632)에 10권4책의 목판본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개간되었다. 「家禮」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생활 예절의 규범으로 살았던 책으로서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禮樂에 밝은 申滉이 만년에 편찬, 인쇄해 놓은 유고를 그의 아들 申得淵이 인멸될 것을 우려하여 「家禮諺解」를 간행한 것이다.

이에 나타나는 국어적적 특징을 살펴보면³⁹⁾, 첫째, 3자 합용병서가 나타나지 않으며, 둘째, 어말에서 ㅅ과 ㄷ이 혼기되고, 셋째, 어두음절에서 ‘·’의 동요가 나타난다. 넷째 ‘ㅂ’와 ‘ㅅ’의 혼기가 보인다.

이전 묘법년화경에서도 3자 합용병서는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17초 이후에도 17C초 이후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⑨ 「勸念要錄」

「권념요록」은 뇌암 普雨禪師가 仁祖 15년(1637)이 불교 설화인 왕량반흔전을 비롯한 11편의 이야기를 언해하여 편찬한 1冊 35張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동화사본, 해인사본, 선운사본, 흥진사본 등의 異板本이 있으며 왕량반흔전 이외의 이야기는 중국의 불교 설화로 알려져 있다.

「권념요록」에 나타나는 국어적적 특징으로는⁴⁰⁾ 첫째, 3자 합용병서가 나타나고, 둘째, 어말에 ㅅ과 ㄷ이 혼기되고 (다 ㅅ>다 ㅅ), 셋째, 어중의 ㄹ ㄹ 표기가 나타난다.

여기서 묘법년화경과 비교하면 묘법년화경은 3자 합용병서도 아직 나타나

39) 한국어학연구회(1995), 400-404.

40) 한국어학연구회(1995), 434-439.

지 않았고, 어종의 ㄹ-ㄹ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등, 이 책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후에 에 나타나는 것으로 17세기 초반부에 필사된 「묘법년화경」은 아직 16세기 현상도 보이면서 17세기 근대국어의 특징도 보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6. 結 言

本 사경이 완성된 天啓 六年 (1626) 三月이면 光海君이 仁祖 反正으로 廢位되고(1623) 이듬해인 1624년에는 李适의 亂으로 전국이 뒤숭숭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明을 대신한 淸이 光海君의 復位를 구실로 朝鮮을 침입하기 1년 전으로 이러한 시기에 宮中에서 宮女가 한글 사경을 사성(寫成)하였다는 사실은 儒敎立國을 표방한 朝鮮王朝의 宮中 풍습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한국 문학 사상 최초로 海外로 무대를 옮기므로써 우리 민족의 海外進出 사상을 묘사한 洪吉童傳이 光海君(1608~1623)때 나오는데 이어, 反正으로 光海君이 廢位되고 仁祖가 들어서고(1623~1649)도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한글이 宮中에서도 널리 쓰였기에 사경도 한글로 나오게 되었음은 당시 사회가 國學에 관심을 쏟았고 朝野 모두의 관심사였음을 말하여 준다고 하겠다.

당시 大陸은 明清 교체기였기에 그 영향을 받은 조선왕조에서도 혼란 속에 있었으나 國策인 親明策과는 달리 「우리 것을 찾고자 불경까지도 우리말로 옮겨 우리의 얼을 지키자는 정신이 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한글 묵사경은 승유배불책이 국시로 확고하게 굳혀진 17세기 초의 조선 왕조, 그것도 유교적 규범이 엄격한 궁중생활을 하고 있던 상궁에 의해서 사성된 공덕경인 점에서 자못 이채롭게 평가되는 귀중한 희귀 자료이기 때문에 한글 묵사경이 갖는 의의는 더욱 클 뿐 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상과 사경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데도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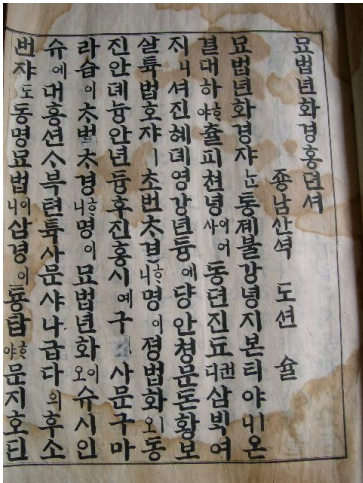
이 「묘법년화경」의 분석을 위하여 寫經의 유래와 본 사경이 寫成된 시대적 배경과 함께 書誌的 특징 및 國語學的 특징을 살폈다. 특히 寫經의 音譯 표기 내용을 본 사경이 사성된 시기 즉 17세기 초 전후의 다른 언해본들과도 비교하여 국어학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본 묘법년화경 사성기에 기록된대로 즉 17세기 초에 본 사경이 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서지학 연구 및 17세기 초의 한자에 쓰인 한글 표음법 연구 등 국문학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며 앞으로 현존 법화경들과의 비교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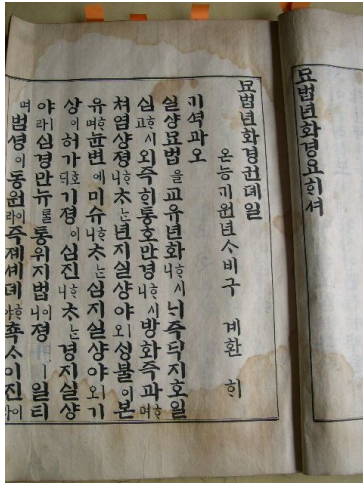
1. 姜吉云. 「國語史情設」. 서울: 螢雪出版社, 1993.
2. 姜信沆. 「四聲通解研究」. 서울: 新雅社, 1973.
3. 權煥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4. 金敏洙. 「新國語學史」. 서울: 一潮閣, 2003.
5. 金亨奎. 「國語史概要」. 서울: 一朝閣, 1982.
6. 徐廷範. 「音韻의 國語史的 研究」. 서울: 集文堂, 1982.
7. 安秉禧. 「國語史 資料研究」.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92.
8. 安秉禧. 「國語史 研究」.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92.
9. 譯經委員會. 「妙法蓮華經」. 서울: 東國譯經院, 1988.
10. 李其文. 「國語史概說」. 서울: 太學社, 1993.
11. 李其文. 「訓蒙字會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12. 李其文. 「國語音韻史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13. 李箕永. 「佛典解說」.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1.
14.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서울: 新文館, 1979.
15. 李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寶蓮閣, 1973.
16.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2.

17. 千惠鳳. 「國寶」 12. 서울: 藝耕産業社, 1985.
18. 한국어학연구회편. 「국어사 자료선집」. 서울: 박이정출판사, 1995.
- 19 「妙法蓮華經」. 影印 서울: 東國大學校. 781.
20. 홍윤표.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 서울: 太學社, 1993.
21. 강순애. “조선조 활자본계의 묘법년화경 판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 10집 (1999), 55-92.
22. 黃壽永. “寫經의 歷史” 「佛敎美行」 7(1983), 65-71.
23. 黃壽永. “安城情源寺의 高麗寫經.” 「東洋學」 5(1975), 44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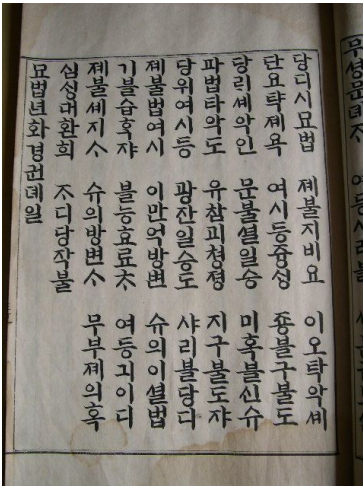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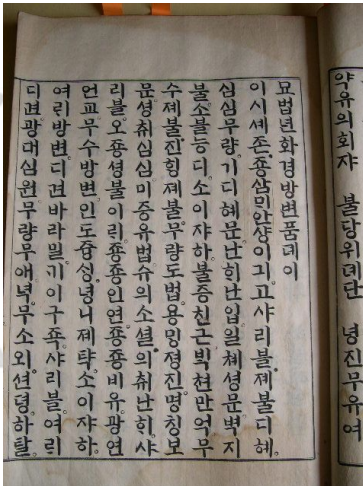
<도 1> 묘법년화경흥진서



<도 2> 묘법년화경 권제1



<도 3> 묘법년화경 권제1 내용



<도 4> 묘법년화경 방변품 제2

